

김장철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

- 박성훈 해수부 차관, 정부비축 천일염 방출 및 수산물 할인행사 현장 방문
- 김장철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천일염 정부 비축물량 최대 1만 톤 할인공급, 할인행사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 추진

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월 2일(목) 오후 서울시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정부비축 천일염 방출 현황과 수산물 할인행사 현장을 살펴보는 등 지난 11월 2일(목)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'2023년 김장 재료 수급안정 대책'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.

박 차관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천일염 등 김장철 재료와 주요 수산물 물가 동향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, 천일염 등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현황과 수산물 할인행사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.

해양수산부는 최근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△가격상승품목(천일염 등) 정부 비축물량 공급, △수산물 할인행사(최대 60% 할인, 11. 2~26.), △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, △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할인 발행, △고등어 할당관세(관세 10→0%) 1만 톤 시행(11.6~)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.

이 중에서도 특히, 김장철 주재료 중 하나인 천일염은 국산과 수입산 정부 비축 물량 최대 1만 톤을 방출한다. 소비자 직관처인 전통시장과 마트에는 최대 5천 톤을 할인 공급하여 10kg 기준 시중 가격(3만 원)의 1/3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. 아울러 수입산 천일염도 5천 톤 확보하여 엄격한 검사를 거친 후 수요처에 신속 공급할 계획이다.

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현장에서 “연말까지 국민들께서 부담없이 우리 수산물로 풍성한 식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먹거리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.”라며, “특히, 김장 재료인 천일염은 정부 비축물량 최대 1만 톤을 시중가격의 1/3 수준으로 할인 공급하는 등 김장철 먹거리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부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.”라고 말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수산정책관	책임자	과 장	구도형 (044-200-5440)
	유통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정재훈 (044-200-5627)